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에스코넥(096630)

### 하드웨어/IT장비

초정밀 품질검사 시스템 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

기업현황

주요 변동사항

재무분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고병훈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8.08.23.에 발간된 동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IR협회(kirs.or.kr)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투자자종합정보포털(SMILE),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등록된 기존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기업데이터(주)(TEL.02-3215-25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기업현황

사업 부문은  
무선사업 부문,  
채용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

(주)에스코넥(이하 ‘동사’)은 2000년 1월에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7년 12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2009년에 (주)삼영코넥을 흡수합병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사업부문은 분할하고 휴대폰 금속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이사 박순관은 삼성시계(주)에서 1986년부터 1998년도까지 근무한 경험을 등을 바탕으로 (주)삼영코넥을 설립하였다. 2009년 5월에 동사의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9년 11월부터는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현재까지 동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2019년 6월말 기준 최대주주인 박순관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6.41%이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무선사업 부문, 채용서비스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된다. 무선사업 부문은 휴대폰 금속부품 및 금형제조부문이며, 채용서비스 부문은 취업포털 ‘커리어(career.co.kr)’를 기반으로 하는 취업관련 정보 제공이 주요 사업이다. 기타 부문은 혁신사업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리튬1차전지 제조업과 근거리 감시 레이더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한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동관삼영전자(유), 에스코넥VINA, 에스코넥 BGVINA, (주)커리어넷이 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각 회사별 개황과 동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상호	주소	자산총액	지분율
무선사업	동관삼영전자(유)	중국 광동성	20,487	100%
	에스코넥 VINA	베트남 박닌시	10,955	100%
	에스코넥 BG VINA	베트남 박장시	57,139	100%
채용서비스	(주)커리어넷	서울 구로구	12,381	76.88%

\*출처: 에스코넥

2019년 상반기에  
출시된 삼성전자  
‘Galaxy S10’  
4개의 제품에  
금속부품을 공급

사업부문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손실)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2017년과 2018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 중 무선사업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94.24%와 91.89%로 동사의 핵심 사업은 무선사업 부문이다.

동사는 삼성전자의 1차 협력기업으로 삼성전자가 2019년도 상반기에 출시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Galaxy S10’ 4개의 제품에 금속부품을 공급하였다.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아서 2018년도에 ‘혁신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고, 생산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년 고객사 모델화 사업장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표 2]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무선사업	344,568	26,757	337,308	25,825	121,736	-586
	94.24	137.61	91.89	143.30	91.82	
채용서비스	18,816	863	21,241	2,126	9,349	188
	5.15	4.44	5.79	11.80	7.05	
혁신사업	2,244	-8,176	8,505	-9,931	1,492	-3,243
	0.61	-42.05	2.32	-55.10	1.13	
합계	365,629	19,445	367,055	18,020	132,577	-3,641
	100	100	100	100	100	

\*출처: 에스코넥, 한국기업데이터 재구성

**2018년도  
채용서비스 부문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도 대비  
성장**

채용서비스 부문은 1)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채용서비스, 2) 대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채용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HR솔루션서비스, 3)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주 및 운영하는 공공취업지원서비스, 4) 국내 50여개 대학의 취업 전산망을 구축, 유지 및 보수하는 대학취업 전산망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신규 사업과 용역 매출의 확대로 인해서 2018년도의 채용서비스 부문은 세 개의 사업부문 중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커리어넷(career.co.kr)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정보서비스(취업포털사이트)’ 분야에서 7년(2012~2018년)연속 1위를 수상한데 이어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채용서비스 시장의 주요한 기업으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1차 전지 공급  
사업 완료 후  
민수 및 해외 시장  
참여를 위한 설비  
투자 진행**

혁신사업 부문에서 동사는 리튬 1차 전지 브랜드 ‘아리셀’ 을 보유하고 있다. 긴 수명이 요구되는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 군용장비, 의료장비, RFID 및 각종 산업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제품으로 상온 기준 10년 이상의 저장수명, 낮은 자가방전율(섭씨 20도 저장 시 연 1% 미만),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의 작동 전압을 개선한 점 등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2015년도부터 전지사업을 추진했으며, 2016년도에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전지 생산능력을 인정받았다. 2017년도 9월에는 방위사업청에 75억9백만원 규모의 리튬 1차 전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수주하여 2018년 11월말에 납품을 완료하였다.

상기 사업 수주로 인해서 2018년도 기타 부문 매출은 2017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손실 또한 증가하였으나, 방위 산업 이외에도 민수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II. 주요 변동사항

- ▶ 무선사업 부문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설비 투자
- ▶ 2차전지용 부품 및 화장품 용기 등으로 금속부품 가공기술 적용 분야 확대
- ▶ 이산화탄소 재활용 원천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수소경제 참여 기대

**초정밀 품질검사  
시스템 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

무선사업 부문의 2018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매출 또한 감소하였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사는 2018년도에 77억원 규모의 기계장치(포장기, 크기검사설비 외)를 취득하는 등 초정밀 검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품질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외 사업장에 구축함으로써 삼성전자에 휴대폰용 금속부품을 공급하는 국내외 경쟁사와의 경쟁과 부품 공급가격 인하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 1]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동 검사 및 포장기 모습



\*출처: 에스코넥

**2차전지용  
금속부품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착수**

당사는 금속부품가공 기술을 휴대폰과 태블릿(Tablet) 등이 포함된 IT 제품 이외에도 2차전지와 화장품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차전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주요 제품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2차전지 수출 규모는 8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당사는 2차전지 시장과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전지용 캡 조립체<sup>1)</sup>(Cap assembly), 원통형 및 각형 2차전지용 캔<sup>2)</sup>(Can) 등을 목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의 1차 협력사로 등록하였으며, 캡 조립체 개발 활동을 착수하였다. 고객사의 제조시설 위치 등을 감안하여 국내제조시설과 중국법인의 제조시설에서 해당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2차전지용 캔 등 생산 부품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 캡 조립체: 외부로 부터의 충격 또는 과충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서 전지의 폭발을 방지하는 부품

2) 캔: 전지 내부의 내용물(양극재료, 음극재료, 전해액 외)을 담는 금속제 케이스

**해외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 금속제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기 위한  
샘플 제작**

화장품 용기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및 금속 등으로 분류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플라스틱 용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새로운 화장품 용기 개발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기업의 인식도 개선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동사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등을 활용하는 금속제 화장품 용기 시장을 동사의 금속부품가공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림 2] 동사가 샘플로 제작한 알루미늄 소재 화장품 용기 모습**



\*출처: 에스코넥

동사는 유럽의 명품 화장품 브랜드 기업에 15년 이상 화장품 용기를 공급한 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되던 플라스틱 소재 용기를 대체하는 알루미늄 소재 용기 샘플을 제작하였다. 이 후 해당 브랜드 기업에 샘플을 전달하였으며, 제품 양산을 위한 설비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자원화  
원천기술을 보유한  
'리카본'社에 대한  
투자 및 관련  
활동을 통한  
신사업 참여**

정부는 2018년 7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발표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탄소자원화기술을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으로 선정하고 기후기술실증 사업화를 통한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2018년 8월에 발표된 “혁신성장전략투자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2019년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축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사는 화력발전소, 음·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메탄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핵심 보유기술인 플라즈마 탄소전환장치<sup>1)</sup>(Plasma Carbon Conversion Unit, 이하 PCCU)에 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리카본(Recarbon USA Inc, 이하 RCU)”의 지분(2019년 2분기말 기준 6.30%) 및 제조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조기술로 고부가가치의 합성가스를 활용한 메탄올, 에탄올 제조, DME 제조, Clean H<sub>2</sub>, 고순도의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수 있다.

탄소자원화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RCU의 플라즈마 탄소전환기술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225tonCO<sub>2</sub>/year을 처리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리하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최종 결과발표를 2019년 7월에 완료하였고, 이후 대구시와 해당 기술을 적용한 2단계 Scale-Up 사업을 추진예정이다.

또한, 2019년 7월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탄소자원화 기술고도화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의 2.5tonCO<sub>2</sub>/day 포집설비와 연계한 1,500tonCO<sub>2</sub>/year 감축/전환 설비 구축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화 실증을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동사는 본 연구개발 실증 사업에 플라즈마 탄소전환 제조기술을 적용한 PCCU 설비를 당진화력발전소에 2021년까지 구축하여 실증진행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울산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등)와 해외(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Clean 수소 생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사는 이산화탄소 재활용에 관한 RCU의 상기 기술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RCU사와 기술개발 및 이전, 제조능력 구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7년 4월에는 리카본코리아(Recarbon Korea)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상업화된 DME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울산시와 “DME 플랜트 건립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2019년 1월에는 “한국수소산업협회(KIHA)” 회원사로 가입하는 등 수소 재생산 사업을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동사 단독으로 환경부 주관 태양열을 활용한 바이오메탄 분해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1단계(2017년 ~ 2018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2단계(2019년 ~ 2020년) 실증사업을 정읍 바이오 사이트(Site)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본격적인 청정(clean) 수소 생산기술을 2020년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1) 플라즈마 탄소전환장치: 온실가스 주범인 CH<sub>4</sub>와 CO<sub>2</sub>를 플라즈마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합성가스(수소,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설비
- 2) 디메틸에테르: 석탄, 바이오매스를 촉매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합성가스, 무색, 무취의 연료로 인체에 무해하고 연소 시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이 적게 발생하는 청정한 연료. 가정, 상업용,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로 이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

### Ⅲ. 재무분석

최근 수년간  
매출 상승세  
(결산 기준)

사업부문 중 무선사업 부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평균 92.6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3개년 매출액은 2016년 334,555백만 원, 2017년 365,630백만 원, 2018년 367,055백만 원으로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매출원가율 상승과 모바일기기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인해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132,578백만 원으로 2018년 동기(178,496백만 원) 대비 25.72% 감소하였다.

부채비율  
개선 추세  
(결산 기준)

2016년도 부채비율은 128.25%였으나 2017년도에는 매입채무 관리를 통해 94.35%로 개선되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장기차입금 6,66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무보증사모사채 전액(8,600백만 원) 상환 및 당기법인세부채 감소(3,351백만 원)로 인해 74.45%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등 수년간 개선 추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도 상반기에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은 88.55%로 증가하였다.

적정 수준의  
수익성 시현  
(결산 기준)

2017년도 영업이익률은 5.32%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에 매출원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급여성 경비 및 지급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4.91%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은 최근 수년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도 상반기에는 매출원가율이 92.04%로 전년 동기(85.79%) 대비 상승하였고 고정비성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 및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표 3] 제품별 매출추이 변화(연결)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무선사업부문	3,070	91.76	3,445	94.24	3,373	91.90	1,218	91.82
채용서비스부 문 외	276	8.24	211	5.76	297	8.10	108	8.18
합 계	3,346	100.00	3,656	100.00	3,670	100.00	1,326	100.0

[표 4] 주요 재무지표

(단위: 억원, %, 주)2018년 2분기 대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분기
부채비율	128.25	94.35	74.45	88.55
매출액	334,555	365,630	367,055	132,578
매출액증가율	8.78	9.29	0.39	-25.72 주)
영업이익	17,631	19,445	18,020	-3,641
영업이익률	5.27	5.32	4.91	-2.75
당기순이익률	3.30	3.85	4.02	-1.00

증권사 투자 의견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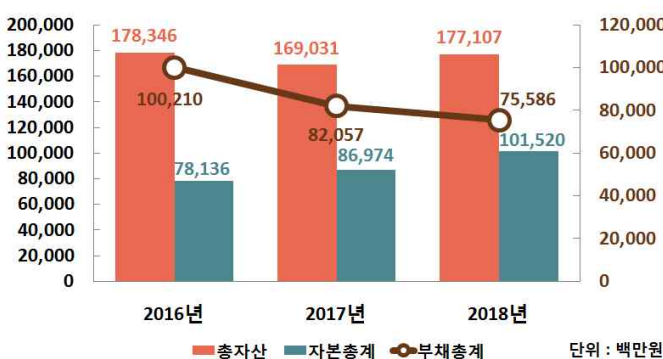


·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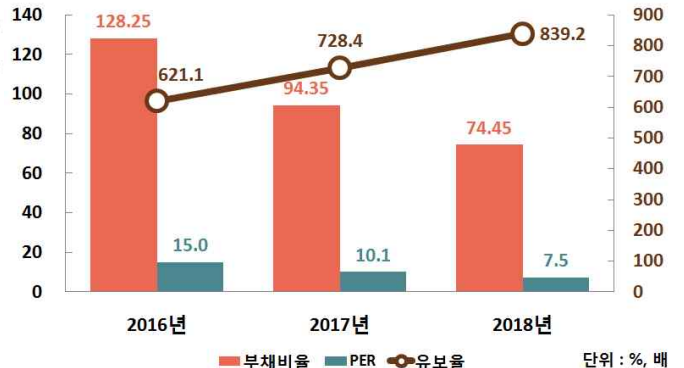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K-IFRS연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유동자산	104,791	82,497	95,272
현금 및 현금성자산	47,905	27,062	30,203
매출채권	34,133	21,949	30,053
재고자산	12,142	19,328	14,218
비유동자산	73,555	86,534	81,835
투자자산	1,174	1,221	279
유형자산	41,612	42,319	42,239
무형자산	1,188	948	594
<b>자산총계</b>	<b>178,346</b>	<b>169,031</b>	<b>177,107</b>
유동부채	84,726	77,638	64,270
매입채무	42,248	16,699	16,339
유동차입부채	33,383	47,439	39,658
단기차입금	23,010	33,256	35,325
사채	2,400	8,600	-
유동성장기부채	7,973	5,583	4,333
비유동부채	15,484	4,419	11,316
장기차입부채	2,583	-	6,666
사채	-	-	-
장기차입금	2,583	-	6,666
<b>부채총계</b>	<b>100,210</b>	<b>82,057</b>	<b>75,586</b>
지배주주지분	77,115	85,791	99,987
자본금	13,053	13,053	13,053
비지배주주지분	1,021	1,183	1,533
<b>자본총계</b>	<b>78,136</b>	<b>86,974</b>	<b>101,520</b>

자산/부채/자본 비교



부채비율/유보율/PER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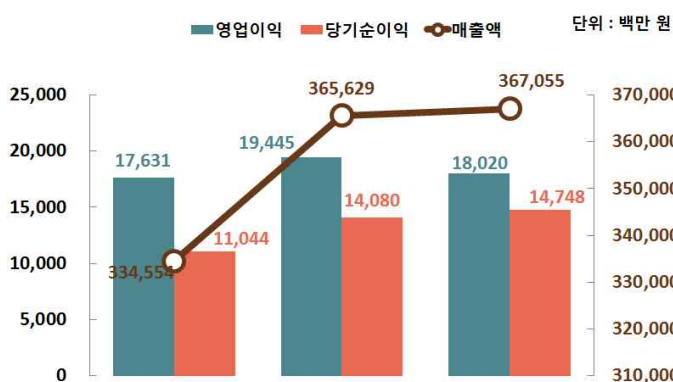


·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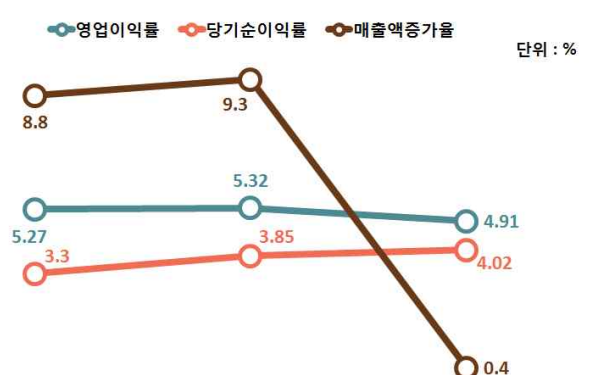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K-IFRS연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334,554	365,629	367,055
매출원가	284,323	313,350	318,825
매출총이익(손실)	50,231	52,279	48,230
판매비와관리비	32,600	32,834	30,210
급여	4,314	4,691	13,804
감가상각비	920	543	767
무형자산상각비	312	362	328
연구·경상개발비	1,691	1,242	172
영업이익(손실)	17,631	19,445	18,020
영업외수익	528	2,009	412
영업외비용	2,699	1,855	3,126
이자비용	1,683	1,485	1,663
법인세차감전순손익	15,459	19,599	15,306
법인세비용	4,415	5,519	558
계속사업이익(손실)	11,044	14,080	14,748
중단사업이익(손실)	-	-	-
당기순이익(순손실)	11,044	14,080	14,748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582	13,935	14,367
비지배주주지분	461	145	381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변화 추이



·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K-IFRS연결)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b>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31,639</b>	<b>7,691</b>	<b>19,399</b>
당기순이익(손실)	11,044	14,080	14,748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22,995	24,522	25,770
유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10,261	13,488	10,504
무형자산상각비	312	362	328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5,378	7,129	17,328
자산부채의 변동	2,978	(23,782)	(3,79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162)	6,886	(11,43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777)	(7,185)	4,63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5,125	(21,991)	3,786
<b>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3,845</b>	<b>-29,703</b>	<b>-15,823</b>
투자활동 현금유입	6,785	6,758	15,741
유동성금융자산 등의 감소	24	6,000	6,000
유무형자산의 감소	1,617	282	4,091
투자활동 현금유출	10,630	36,461	31,564
유동성금융자산 등의 증가	307	5,705	12,110
유무형자산의 증가	8,806	26,147	15,522
<b>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11,122</b>	<b>1,304</b>	<b>-417</b>
재무활동 현금유입	3,740	13,053	15,781
장단기차입금 증가	-	12,070	15,635
사채 증가	3,600	-	-
자본금 증가	-	-	-
재무활동 현금유출	14,862	11,749	16,198
장단기차입금 감소	4,719	6,797	5,962
사채 감소	10,143	2,400	8,6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	-
배당금의 지급	-	-	-
<b>현금의 증가(감소)</b>	<b>16,807</b>	<b>-20,843</b>	<b>3,141</b>
기초현금	31,098	47,905	27,062
기말현금	47,905	27,062	30,203

현금흐름의 변화

